중소기업중앙회
현장 소통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

말 씀 자 료

○ 일 시 : 2026. 11. 26.(목) 10:2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서울 여의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모두 말씀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중소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그리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단체 협회장님,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 여건과 공정위의 정책 기조

○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주력 수출 산업의 대기업과
그 대기업이 소속된 재벌 대기업집단이
성장의 성과를 독차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대기업집단의 매출이
GDP의 90퍼센트에 가깝고,
집단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부거래 비중도 GDP의 1/3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건실한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는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전자, 조선 등
대한민국의 대표 글로벌 대기업은
험난했던 경제발전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온 국민이 합심하여 이룬
성과의 집합체입니다.
이제는 재벌 기업집단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걷어내고
국민경제의 공급망을 키우는
건설적 과업에 나서야 합니다.

○ 친족이 경영권을 세습하는 관행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유능한 경영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합리적 경영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주력 대기업과 연관성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업종으로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는 문어발식 확장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 핵심 사업 중심으로
본업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 자산을 재편해야만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열사가 독차지하던 영역이
시장에 열리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집니다.
이렇게 건강한 국내 공급망을 만들어야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험난한 폭풍 속에서도 순항할 수 있는
체급으로 국가 경제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강자의 시장력을 견제하고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제도개혁과 법집행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자신이 일한 댓가를
못 받는 불안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2026년 갑을분야 주요정책 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중소기업이 자신의 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인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건설 하도급에서 발주자, 원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연료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보다 실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곧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다 손쉽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원에 대한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제를 마련하여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이 줄어든다면
24년부터 시행 중인 다섯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더불어 강력한 기술탈취 억제 효과는 물론
충분한 피해구제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혁신의 결실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기술탈취 행위를 제재하고 있으며
현행 20억 한도 과징금을 100억까지 다섯 배 확대하는 등
법 집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맹분야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 단체와의 협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통분야의 경우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애로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지급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였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맺는 말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에서 견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의
재도약이 가능합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공정한 경쟁과 대기업과의 상생을
보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 현장에서 느끼시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법 집행 등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감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현장에서 들려 주신 어려움과 건의사항들을
경청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건의사항과 의견들을
깊이 참고하여 앞으로 정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담회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